

“전주시 집행부 세입·세출 개선책 필요”

전주시의회 결산감사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과 발표… 체납 징수 노력 부족 등 다수 개선책 권고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결산감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감사위원회(대표위원 박혜숙)가 추진한 이번 감사 결과 전주시의 2024

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겨우 33.56%에 그쳤다. 결산감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 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2,900만원으로 전년(7억4,200만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결산감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1583전주별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결산감사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회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해외감염병 발생 주의하세요”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권고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5·6월 중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에게 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전주시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멕시코, 일본에서는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찾는 베트남과 중국, 태국 등에서는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해외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 여행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까지 홍역,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말라리아 예방약은 여행지에 방문하기 2~7일 전부터 복용해야 한다. 보건소는 또 △해외여행 중 음식을 먹기 전후 반드시 비누로 손 씻기 △사탕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나타·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하기 등 개인위생 수칙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



될 가능성이 있는 검역관리지역(대상감염병 15종, 167개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에는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감염병 잠복기 동안 발열과 발진, 기침, 콧물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시민께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숙지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실현 속도

시, 초록정원사 양성·정원 명소화·정원산책 등 추진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 도시 곳곳에 정원을 가꾸며 정원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정원도시 구축을 위한 4대 핵심사업으로 △초록정원사 양성 △월드컵광장 정원 명소화 △한옥마을 정원산책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공공정원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상반기 초록정원사 기본과정(33명)과 역량강화과정(3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더숲과 협력해 하반기 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식물 관리와 정원 설계, 현장실습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며, 정원문화 확산을 이룰 정원사 양성을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 도시 곳곳에 정원을 가꾸며 정원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는 해마다 정원산업박람회가 개최되는 전주월드컵광장에 현재까지 총 25개의 전문·시민 작가정원을 조성했으며 이 중 일부는 초록정원사 출신의 시민작가가 직접 설계·시공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시에 시는 국가대표 여행자인 전주한옥마을에 초록정원사와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흔들정원 △달빛정원 △문슬정원 등 6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4개 정원

진북동 지사협, 가로수회관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희)는 13일 가로수회관(대표 조영순)에 함께 방문해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 현판식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북동 가로수 회관 조영순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착한가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 지속적으로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완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홍보·판매 행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13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완산구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하고 해피드림(익산) 등 도내 3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판매 행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판매망



을 확보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품을 비롯해 제과제빵류, 견과류, 참기름, 들기름 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란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